**<대장금>이 가져다준 문화적 감동**

一 “가장 순수한 감동”

2005년 4월 드라마 <대장금>이 TVB(홍콩 지상파 방송)에서 방영됐다. 무려 321만 명에 달한 시청자는 홍콩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깝다. 이로 인해 <대장금>은 홍콩 25년간 드라마 시청률 랭킹 탑 3에서도 1위를 차지해 수많은 사람이 영원한 클래식이라고 생각하는 인기 드라마 <상해탄>을 뛰어넘었다. 2005년 9월 <대장금>은 중국에서 방영돼 평균 시장 점유율 17.3%로 중국 동 시간대 1위 차지했다.

필자의 나이가 되면 한국 드라마들 보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본다. 명확하고 순수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. <대장금>은 바로 이러한 순수한 감동을 담은 드라마다. 장금의 부지런함과 끈기는 나이, 시대, 국가 불문 모든 이의 꿈과 희망이 담겼다.

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. “감동을 준다”는 것은 “좋아하다”, “열광하다”, “유행이다” 보다 한 단계 높은 공감을 가져다주는 것이고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단계다. 가장 순수한 감동을 주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. 한국 드라마 중 생이별의 사랑, 호족 간의 원한, 가정 윤리 등 주제, 심지어 100회가 넘는 스토리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드라마도 있다. 하지만 10년간 전 세계 시청자들이 내내 잊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한 것은 오직 그 부지런 뒷모습과 그 밝고 강인한 웃음뿐이다. 바로 자신의 분발로 사람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장금이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오랜만의 감동이다.